

북해명칭의 역사

Bela Pokoly

(헝가리 토지·지도제작과 농업 및 지역개발국 지명위원회 교수)

전통적인 고대 로마의 명칭이며, 또한 유명한 지리학자인 프톨레미에 의해 사용된 "Oceanus Germanicus" 또는 "Mare Germanicum"은 현재의 북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현재 표현형식의 지방적인 또는 대중적인 사용은 베네룩스 국가들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도제작에 있어서 오래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근대 초기부터 금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변해갔다. 베네룩스 국민들은 그들 국가의 위치에 상대적인 자침에 따라 "북해 De Noord Zee"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초기에 네덜란드에서의 이러한 지명의 수용은 분명히 근대 초기 시기의 네덜란드의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한 국가나 국민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지 않은 좀 더 중립적인 지명은 그 사용의 확산을 촉진시킬지도 모른다.